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와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 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춘배 기자 acbae@afnews.co.kr

농어촌공사 전남, 배수로 정비로 침수 피해 예방 나서

우수한 기자 | 승인 2025.05.22 17:48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25억원 투입 침수 예상 지역 배수로 정비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사진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뉴스웍스=우수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와 준설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업은 기상청의 여름철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5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와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가, 시설하우스, 타작물 밀집 지역 등 침수 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은 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등 9개 시·군, 11개 지구에서 배수로 총 29km를 준설하고 퇴적토 약 13만㎥를 제거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력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56개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항구적인 농경지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수한 기자 honam1203@newsworks.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배수로 준설 사업비 국비 25억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06 |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06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농업 환경 개선 기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수개선 준설. [사진=한국농어촌공사전남본부] 2025.05.22 ej7648@newspim.com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 m^3 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배수로 준설비 국비 25억 원 확보

✎ 정상명 기자 | ㉠ 승인 2025.05.22 15:38

침수취약지역 우선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 joongdo3345@naver.com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침수취약지 배수로 준설 국비 추가 확보

✎ 한민식 기자 | Ⓞ 승인 2025.05.22 14:30

총 29km 배수로 정비·13만 m^3 퇴적토 제거



배수로 준설 작업 현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한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 m^3 를 준설할 계획이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식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25억원 들여 배수로 준설 사업 착수

승인 : 2025-05-22 17:24:47

우기 시작 전에 준설 사업 마무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전남의 한 지자체 배수로의 준설 사업 모습./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와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와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와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와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m³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남 기자 sidae1004@asia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배수로 사업비 추가 확보 ... 농업환경 개선 기대

25억원 추가 투입, 침수 예상지역 배수로 정비 등

2025년 05월 22일 (목) 오후 03시 07분 44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침수 예상지역 배수로 정비·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준설사업은 여름철 집중 강우에 대비,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와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침수 예상지역 '배수로 정비·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 취약지역, '9개 시·군 11개 지구'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를 준설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김재식 공사 전남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클리오늘] 농어촌公 전남본부, 배수로 준설 사업비 추가 확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 이경재 기자 | ⓒ 승인 2025.05.22 15:59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25억원 투입해 침수 예상 지역 배수로 정비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m³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재 기자 kjlee5000@hanmail.net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비 25억 확보

✎ 주동석 기자 | ⓒ 승인 2025.05.22 13:50

배수로 준설 사업비 추가 확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환경 개선 기대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수개선 준설 작업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전남 침수 예상 지역 정비·준설작업비 25억 추가 확보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도 농업정책과

2025년 05월 22일(목) 16:28



전남 관내 배수개선사업 공사 현장.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다가오는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9개 시·군(나주·해남·완도·광양·보성·장성·함평·진도·무안),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를 준설할 구상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홍승현 기자

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47898894410065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1일 22:52:25

농어촌공 전남-전남도, 배수로 준설 국비 '25억원' 추가 확보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5.22 14:46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 환경 개선 기대



배수로 정비사업.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침수 예상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 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m³를 준설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식 기자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영농신문

www.youngnong.co.kr

HOME 네트워크 지방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배수로 준설 사업비 25 억원 추가 확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 환경 개선 기대

김도윤 기자

승인 2025.05.22 17:1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 사진)는 우기철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추가 예산 25억원을 전라남도로부터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가 확보한 예산 25억원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5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지구 및 인접 들녘을 중심으로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9개 시·군(나주시, 해남군, 완도군, 광양시, 보성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무안군)11개 지구의 배수로 29km에 대해 퇴적토 약 13만m³를 준설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우기철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침수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조해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항구적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배수개선사업 56개 지구에 국고 95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윤 기자 nh9669@daum.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